

1906년 일한상품박람회(日韓商品博覽會)와 『부산안내지(釜山案内誌)』

박태열* · 신인섭**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일한상품박람회
- III. 부산안내지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박람회를 선보인 곳은 부산이다. 1906년 현재 부산 광복동에서는 일한상품박람회(日韓商品博覽會, 이하 박람회)가 개최되었다.¹⁾ 그동안 이 박람회에 관한 기록은 1906년 부산의 일본인상업회의소가 발행한 일한상품박람회보고서개요(日韓商品博覽會報告書概要)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²⁾ 이외 박람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 사단법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집행위원장 / typ0506@madstars.org

** 前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 1929insshin@naver.com

1) 『부산일보』 2006. 12. 28., ‘한국 최초 박람회 부산서 열렸다’.

2) 차철욱, 『1906년 ‘일한 상품 박람회’와 수입 무역의 동향』, 『지역과 역사』 21, 2007, 229~258쪽.

있는 부산안내지(釜山案内誌)는 같은 해 일한상품박람회협찬회(日韓商品博覽會協贊會)가 발행했는데,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아 일본 고베대학 도서관(神戸大學 社會系圖)을 통해 2024년 3월 복사본을 입수했다.

부산안내지에는 박람회의 목적, 의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발행처인 일한상품박람회협찬회 관련 사항 등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박람회에 관한 내용은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그 이유는 일한상품박람회보고서개요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항들이 이미 자세히 포함되었으므로 대신 박람회를 계기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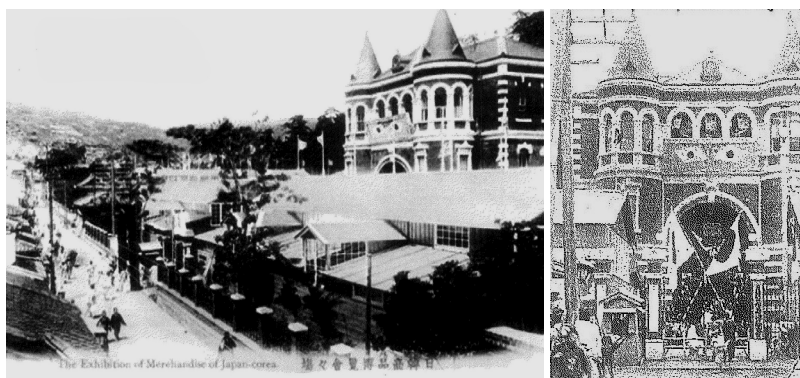
한편 부산안내지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 관련 전반적인 소개 및 박람회 관련 자료 외 당시 출판물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94건이라는 많은 수의 다양한 상품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안내지를 통해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거래되었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일상생활은 어떠했는가 등 당시 시장경제 상황 전반도 살펴볼 수 있다.

Ⅱ. 일한상품박람회

1906년 박람회를 개최한 <부산상법회의소(釜山商法會議所)>는 1897년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에서 출범한 민간단체이며, 1876년 한일수호조규 체결 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창설된 상업단체였다.³⁾

3)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 연보』』(부산역사문화대전(<https://busan.grandculture.net>), 집필자: 차철욱). 호칭은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로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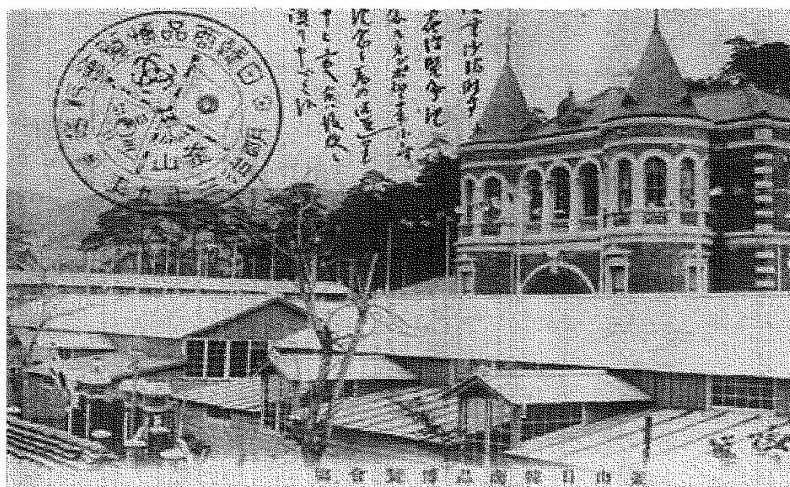
박람회는 1906년 4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92일 동안 열렸다. 장소는 당시 일본인 거류지 내 현재 부산 광복동에 위치하고 있던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와 상품 전시관이 있는 3층 건물과 부속 건물이었다(<그림 1>, <그림 2> 참조). 대외적으로는 한일 공동 주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주도한 한국 최초의 박람회였다. 일본은 이 박람회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한 한국 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⁴⁾ 통감 이등박문이 기부금을 내고 정부 고위인사를 파견하는 등 이 박람회에 대한 중요성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 일한상품박람회장 전경⁵⁾

4) 차철욱, 앞의 논문, 2007, 229~258쪽.

5) 日韓商品博覽會協贊會, 『釜山案内誌』, 日本 神戸大學 社會系圖, 1906. 일한상품박람회장 전경으로 박람회가 개최되던 무렵 일본에서는 컬러로 된 인쇄물이 대단히 귀했고 인기가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 장려하는 홍보물이었다. 영문 <The Exhibition of Merchandise of Japan-corea>와 한문 <日韓商品博覽會會場>이라고 쓰여 있다. 서양인들에게 일본이 조선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리기 위한 영문 표기이다.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곳이 출입문이다.



〈그림 2〉 일한상품박람회 기념엽서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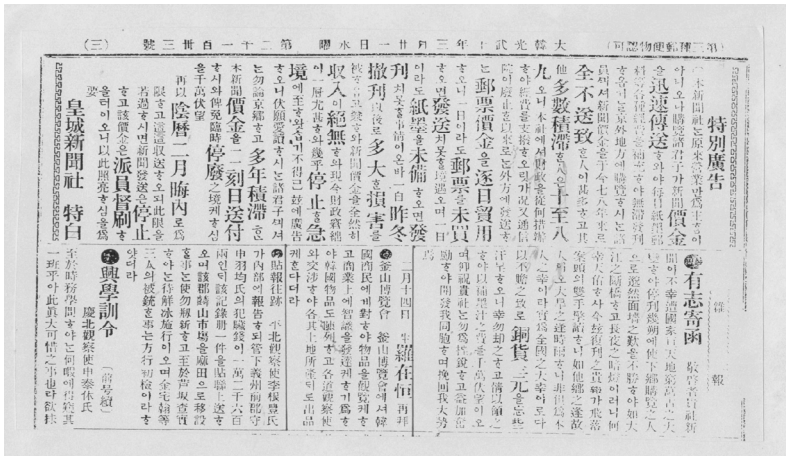
박람회에는 당시 일본의 3대 도시인 동경, 교토, 오사카 등을 비롯한 24개현에서 상품을 출품했다. 참관자 수는 6개월이 채 안 되는 준비 기간에도 7만 7천 명을 넘었다. 부산안내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박람회라는 말이 얼마나 귀에 새롭고 진기하게 느껴졌지는 많은 참관자의 수가 사실을 말하는데 50리, 100리의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노유상부해서 참관하면서 일본 산업의 발달에 놀라고 상품의 진열 정연함과 종류가 많고 기계가 정교하다며 한결같이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당시 박람회와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는 현재까지 3건으로 확인된다. 서울에서 발행하던 국문 일간신문 황성신문(皇城新聞) 2건과 부산에서

6) 日韓商品博覽會協贊會, 위의 자료. 서구화의 바람이 불던 일본 사회상을 드러내듯 인 쇄물 등에는 반드시 영문표기가 들어 있다. 일한상품박람회 기념엽서에는 한일 두 나 라 국기가 들어 있는 기념 스탬프가 찍혀 있어서 공동 주최임을 강조하고 있다.

발행하던 일본어 일간신문 조선시보(朝鮮時報) 기사에서 1건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3>, <그림 4> 참조).



<그림 3> 황성신문 釜山博覽會(부산박람회) 기사⁷⁾

<그림 4> 황성신문에 게재된 日韓商品博覽會(일한상품박람회) 광고⁸⁾

7) 『황성신문』 1906. 3. 21. 3면 2단, ‘釜山博覽會(부산박람회)’ 6줄 보도.

8) 『황성신문』 1906. 6. 22., ‘日韓商品博覽會(일한상품박람회) 광고’.

Ⅲ. 부산안내지

1906년(明治 39년) 7월 1일 일한상품박람회협찬회가 발행한 부산안내지는 가로 8.5cm 세로 13cm 크기에 표지만 컬러로 인쇄된 전체 185페이지로 구성된 책자이다(<그림 5> 참조).⁹⁾ 부산안내지 중 94페이지는 광고이고 나머지는 기사와 사진이다. 기사는 한국의 지리, 13개도 현황, 정치와 풍속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산 인근 지역인 마산, 밀양, 삼랑진 등과 대구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1905년에 개통된 경부선 연안 사정과 부산 부근 명소와 고적 등도 포함되어 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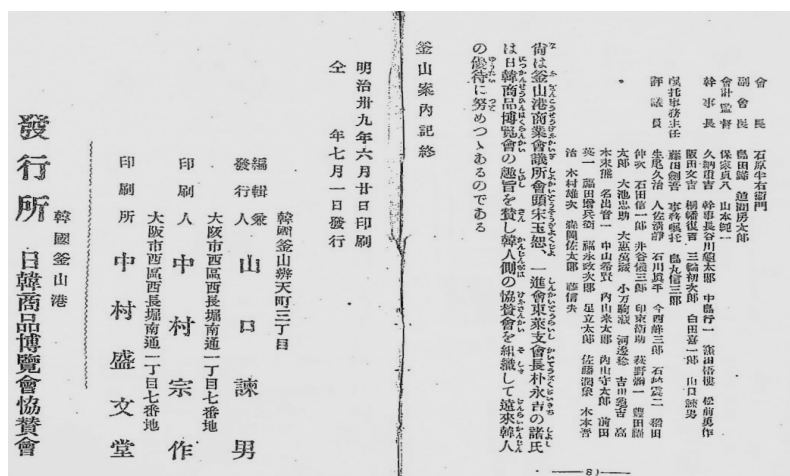


〈그림 5〉 釜山案内誌(부산안내지) 표지

9) 부산안내지는 기사만 페이지 표기를 하고 첫 부분 사진 등과 94개의 광고에는 페이지 표기를 하지 않아 81페이지로 인쇄되어 있다. 하지만 표지 4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차례대로 페이지를 표기하면 모두 185페이지이다.

별 기사가 있어서 역시 부산안내지라는 제목을 이해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현황 가운데는 극장과 여관, 요리점 등의 소개까지 언급했다. 또한 부산 주위의 대구, 마산 및 경부선 주요 역과 대전, 평택, 수원 등의 일본인 상점, 헌병대, 경찰서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경부선 철도역의 열차 시간과 등급별 요금도 나와 있다. 아울러 한국 일반에는 13개 도별 특징과 한국 여행 시 주의할 사항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부산안내지 뒷부분에는 일한상품박람회와 발행자인 일한 상품박람회협찬회에 대해 약 8페이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다.¹⁰⁾ 판권에서는 부산안내지의 발행일을 비롯하여 일한상품박람회협찬회가 부산에 주소지를 둔 편집 겸 발행인에 의뢰하여 오사카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참조).¹¹⁾



〈그림 8〉釜山案内誌(부산안내지) 판권

10) 부산안내지 발행 당시 일한상품박람회협찬회 회장(이시하라 한우에몬, 石原半右衛門)을 비롯하여 부회장, 회계감독, 간사장 등 임원진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

11) 부산안내지의 편집 겸 발행인은 아마구치 이사오(山口諫男), 인쇄소는 오사카 나가무라성문당(中村盛文堂)이다.

부산안내지는 그 제목과 같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안내서이며 사업을 위한 지침서이면서 일본인을 위한 한국 전반에 관한 설명서이기도 하다. 부산안내지 전체 분량에 비하면 일한상품박람회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초기 준비 과정 등에서부터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부산안내지에는 다음과 같이 박람회 준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일한상품박람회 주요 연혁

일자	주요 내용
1905년 12월 16일	박람회 개최 구상, 거류민회와 교섭
1906년 1월 27일	일한상품박람회 계획 수립 후 거류민회 총회 의결(예산 2만엔 외 부산 내외 협찬회원 800명으로부터 받은 5,000엔 있었음)
일자 미상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 서기장 일본 각지 순방. 시모노세끼(下關),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등에서 출품 신청 접수받았는데 의외의 좋은 반응 얻음
1906년 초	경부철도주식회사가 박람회 계획에 찬성함. 박람회 시설 건설자금 전체 무상 대부 합의하고 관련 공사 급진전됨
3월 21일	지진제(地鎮祭) 거행
4월 25일	개장
5월 16일	성대한 개장식 개최. 박람회장은 벅돌 3층 빌딩 본관으로 하고, 부속 건물에서 상품 판매. 그 밖에 500평 규모로 임시 건물 건축
7월 25일	박람회 종료

부산안내지에 따르면 박람회 총 출품자 수는 580명이었는데, 이 중 일본인은 420명, 한국 거주 일본인은 122명, 한국인이 38명이었다. 출품된 상품은 1,164종 31만 4백 개였다. 참관자 수는 7만 7,009명이었고, 이 중 한국인은 2만 6,130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참고로 이 무

렵 부산 인구는 3만 8,000여명이었으며,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에는 일본인이 약 3,000가구 1만 6,000명 정도 살고 있었다.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각종 준비 사업을 벌였는데, 주요 사업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외에도 협찬회 회기(會旗), 회등(會燈) 등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부해 곳곳에 게시함으로써 박람회의 분위기를 띄우기위해 노력했다. 주요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각종 조명에 투입한 것을 보아 박람회 홍보에 얼마나 중점을 두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주최 측은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했으며, 일정량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장거리 참관자를 위해서는 각종 여흥 관람도 제공했다.

〈표 2〉 일한상품박람회 준비를 위한 주요 사업

내용	예산
각종 조명(Illumination)	1,000엔
회원 기장(記章)	500엔
접대비	500엔
연무장(演舞場) 건설비	400엔
향연비(饗宴費)	350엔
가등(街燈) 건설	80엔

한편 부산안내지에는 당시 출판물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모두 94건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왜 부산안내지에 광고를 게재했을까? 경제적인 이유가 첫째일 것이다. 책을 출판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따라서 광고를 팔아 출판비용을 얻자는 목적이다. 다음으로 광고는 정보를 제공한다. 30여 개 이상의 업종 94개 광고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가 번창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기 상점이나 회사를 알리게 되었다. 부산안내지에 게

재된 광고 가운데는 일본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 수상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도 있다. 당시 박람회에 출품한다는 것은 자랑거리였기 때문이다. 부산안내지에 게재된 광고는 업종별로 모두 3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표 3> 참조). 이들 업종을 살펴보면 당시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만큼 여러 업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광고를 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밖에 각종 업종도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1907년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 연보에는 164가지로 나눈 직업 구분이 존재한다.¹²⁾

〈표 3〉 부산안내지 게재 광고 업종별 분류

업종	광고 수	비고	업종	광고 수	비고
잡화	13		구두	2	
술	12	사케(일본주)	총포	2	
여관 ¹³⁾	8		다다미	2	
의류	5		건자재	2	
무역	4		정미소	1	
의약	4		요리점	1	
장류	4	일본 간장	기계류	1	
은행	3	지점, 대리점	잡지 출판	1	
과자	3		차	1	
담배	3		유리 제품	1	
식품	2		성냥	1	
시계	2		철물	1	
직물	2		양품(洋品)	1	
운송	2		통조림	1	
양복	2		신문 판매	1	
사진	2		석유	1	
가구	2		기타	1	

12)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 『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年報』(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소장), 1907, 216~223쪽.

13) 예컨대 <여관(御旅館)>과 <화양어요리(和洋御料理)>의 경우는 여관업으로 저자가 임의로 분류했다. 이런 사례가 다수 있는데, 업종을 구분한다는 것은 때로 애매할

부산안내지에 광고한 상점과 회사의 주소에 따르면 영사관과 관청, 기타 단체, 은행 지점 등 큰 회사가 있는 일본인 거류지, 부산 광복동 용두산 동쪽에는 33개 상점이 있었으며 상점가인 서쪽에는 이보다 많은 38개 상점이 위치했다.

다음으로 부산안내지에 게재된 94개 광고를 표현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일러스트레이션만 있는 광고 30개, 사진,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상표를 모두 이용한 광고 27개, 활자만 사용한 광고 25개, 상표만 제시한 광고 12개이다.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광고를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그림 9>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된 광고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대개 손으로 그린 것을 말하는데 광고주인 상점 또는 회사가 일본이 아닌 부산이라는 제한된 조건 속에 있음을 고려해 인쇄소의 각종 무늬 사용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포함했다. 무늬의 효과적인 사용이란 창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구두 광고는 1/2 페이지 크기이지만 제품인 여성 구두를 일러스트로 보여 주고 있다. 1900년대 초라는 것을 고려하면 시대를 앞서 가는 시각적인 효과를 거둔 광고라 할 수 있겠다.



〈그림 9〉 구두 광고

<그림 10>은 그림,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상표가 모두 있는 광고로 분류된다. 브랜드가 많은 일본 사케 광고는 거의 모두 등록된 브랜드

수가 있다. 어(御)라는 글은 높임, 부드러움, 공손함 또는 친근함 따위를 표시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의 통술 그림이 하나, 둘, 혹은 셋씩 있다. 산서양조소(山西釀造所)의 이 광고도 예외가 아니다. 영어로 JAPAN SAKE라고 쓴 것이 눈에 띈다. 맥주 양조회사와 동업인 듯 カブトビール(카브토 비이루)를 한글로 썼다. 회사 상표는 회사 이름의 한문 산서(山西)의 서(西)자를 썼다. 각종 제품 등 글자 배치가 복잡하고 글자의 선택과 레이아웃도 엉성하다.

韓國一 手販賣

山西釀造所

釜山富平町

電話一六四番

特別吟醸優等酒

韓國一

清酒、濁酒、味淋、燒酎、白酒、東郷清酢、洋酒、鐘詰類、醬油、味噌、蠟燭、其他各種卸小賣

カブトビール 蠟燭印香鼠葡萄酒 丸三麥酒株式會社

JAPAN SAKE

山西釀造所

〈그림 10〉 주류 광고

상표가 두드러지게 표현된 광고는 아래 잡화상 광고다(<그림 11> 참조). 내산(內山) 일본말로는 <우치야마> 첫글자 <우(う)>를 상호로 삼았다. 오른쪽 위는 담배, 왼쪽은 각종 <우지명차>를 파는 상점이다. 아래는 왼쪽이 전화번호, 오른쪽이 주소이다. 이 광고의 특징은 상표를 중시한 멋진 레이아웃이다.



〈그림 11〉 잡화상 광고



〈그림 12〉 은행기업 광고

마지막으로 활자 위주로 구성된 광고이다(〈그림 12〉 참조). 저축, 권업, 흥업 3개 은행의 공동 광고로 일본을 비롯해 대만의 대남과 대북, 한국의 목포, 군산, 인천, 경성, 진남포, 평양 등 도시 이름이 나와 있다. 일본이 중심이기는 하나 대만과 한국을 포함하는 70개 이상의 도시 이름을 기재한 일종의 기업광고 형태이다. 은행은 지점이 설치된 국가와 지점 수를 통해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람회를 주최한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는 광고에 되도록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제품임을 표시하기 위해 “한인향(韓人向)”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권했다. 부산안내지에 게재되어 있는 94개 광고 중 6개 회사가 ‘한인향’ 문구를 표기했고 3개 사는 한국어를 사용했다.

IV. 맺음말

1906년 일한상품박람회가 개최된 부산은 오래 전부터 왜관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왔다. 다양한 생산물과 기술이 전시되는 박람회의 특성상 일본은 이 박람회를 통해 자국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한 한국 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인 목적과 함께 대륙 지배를 위한 방법으로 박람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을 것이다.

일한상품박람회협찬회가 발행한 부산안내지(釜山案内誌)는 일한상품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발행되었지만, 박람회 관련 내용보다는 한국 방문과 시장 진출을 원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 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 특히 부산안내지에는 94건의 다양한 상품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데, 당시 사료(史料)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부산안내지는 일본의 개항 이후 초기 30년간 한국 시장 진출을 연구하는 데에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록물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더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 『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年報』,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1907.

이각규, 『한국의 근대 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차철욱, 『1906년 ‘일한 상품 박람회’와 수입 무역의 동향』, 『지역과 역사』 21, 2007.

日韓商品博覽會協贊會, 『釜山案内誌』, 日本 神戸大學 社會系圖, 1906.

『부산일보』, 『조선시보』, 『황성신문』.

부산역사문화대전(<https://busan.grandculture.net>).

투고일: 2025. 04. 30.

게재확정일: 2025. 06. 20.